**교제와 나눔**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ㆍ교회당예배:** 매주일 15시 예배,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ㆍ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가세요:** Teestube에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ㆍ성경 300독 대행진:** 매일 성경 네 장씩 읽어 1년 1독 신고하세요.

**ㆍ매일성경 9,10월호 받아가세요.**

**ㆍ디아코니축제-‘전교인 만남의 날’:** 9월 11일 주일, 음식 바자

**ㆍ제직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 예배당 앞

**ㆍ여선교회 모임:** 오늘 예배 후 예배당 뒤

**ㆍ뒤메나라 모임:** 8월 25일(목) 20시 온라인

**ㆍ겨자씨 모임:** 8월 27일(토) 15시 Teestube

**ㆍ전화번호:** 이광열 ⇒ 0173-6889 416

**ㆍ생일:** 김좌겸, 박희영

**\*\* 함께 기도합시다 \*\***

1)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드리게 하소서.

2)모이기에 힘써, 배움과 교제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3)코로나19를 넘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가게 하소서.

4)스스로를 돌아보고, 삶 속에 변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5)평화의 주여,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레27:1-15 월/레27:16-34 화/살전1:1-10 수/살전2:1-16

목/살전2:17-3:13 금/살전4:1-12 토/살전4:13-5:11 일/살전5:12-28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8월 21일** | **8월 28일** | **9월 4일** | **9월 11일** |
| **예배기도** | 오지훈 | 서영지 | 이선영 | 박종희 |
| **말씀일기** | 단주현 |  |  | 김영희 |
| **안내위원** |  예배부 |
| **헌금위원** | 오지훈 민경웅 | 민명희 한정우 |

**39-34호 2022년 8월 21일**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주일예배 15: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5:00 Teestube

청소년부 15:00 Teestube

청년부 성경공부 16시 Teestube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 7629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73-6889 416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다함께인도자 |  |
| ※찬송/Gemeindelied ……….......................….…… 4장 ……................................... | 다 함 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54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31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말씀일기/Bibeltagebuch ……………………………………………………………………...찬양/Chor ……..................................... 나의 눈 열어주소서 …………….… | 오지훈 집사단주현 집사서민규 집사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창세기17:1-14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웃기시는 하나님**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441장…..……………………..….…봉헌/Kollekte………................... 여호와께 돌아가자(이유하) .............. | 다 함 께다 함 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레25장 ‘돌아가라’ ◀**

예배와 절기 등을 통해 ‘거룩’을 강조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거룩’을 말씀하신다. 피가 생명이라면, 땅은 ‘삶’이 아닐까! 삶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안식년 및 희년 규례를 명하신다. 땅을 일곱째 해에는 쉬게 하고, 일곱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크게 나팔을 불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10)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10, 13, 27, 41)고 하신다. ‘사람, 땅, 가옥’ 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했더라도 영구히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없다(23)는 것이다.

따져 보면, 49년째에는 일곱 번째 안식년이므로 파종과 수확을 쉬어야 하고, 희년인 50년째에도 또 쉬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점까지 다 신경 쓰셔서 이미 안식년을 지키게 될 때에 “여섯째 해에…복을… 주어 그 소출을 삼 년 동안 쓰게”(21)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지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식년은 제법 지켰겠지만, 사람과 땅을 본래 속해 있던 가족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희년은 여간 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 같다.

희년 제도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경제적 불평등이 두 세대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명령이지만, 자신의 현재 소유를 다 내려놓고 50년 전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제도였으나, 가진 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버거운 제도였을 것이다.

오늘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물론 나는 종을 두고 있지 않다. 내 땅,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기쁨만은 아니라면, 바로 그 지점이지 않을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 쉬지 않고, 쉬게 하지도 않고, 사람과 자연을 몰아세워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온, 그래서 땅이 피곤하여 병들고 하늘도 뚫리고, 부익부 빈익빈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세상이 되어 버린 이유가.

다시 기도하게 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벌써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의 “속량”(48, 49, 51, 52, 54)으로 일찍 자유를 얻어 돌아온 “종”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